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다음 주일 7월 3일 맥추감사절로

- I, II, III 예배시 성찬예식도 -

우리 교회는 오는 7월 3일 주일을 '94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밀과 보리 추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히 UR문제로 실의에 빠진 우리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실질적 도움의

길을 모색하며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94년의 반을 지나도록 사랑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좋은 것으로 채우신 많은 은혜들을 헤아려 보며 풍성한 감사가 넘

치는 한 날로 삼아야 할 것이다.

I, II, III부 예배 시 주님의 살과 피를 넘하는 성찬예식을 행하면서 온 교회는 감사와 헌신의 결단을 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주님의 새 일을 이루기 위한 일꾼들

21명의 안수집사 피택

지난 주일 II부 예배 후와 찬양 예배 후에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21명의 안수집사가 선출되었다. 신임 안수집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준경, 김영준, 윤찬오, 서문석, 김상철, 박정선, 하영수, 허희철, 박두호, 임훈규, 임상현, 박등춘, 왕경래, 이복규, 황정욱, 권영복, 김일용, 노승성, 이관규, 홍성주, 조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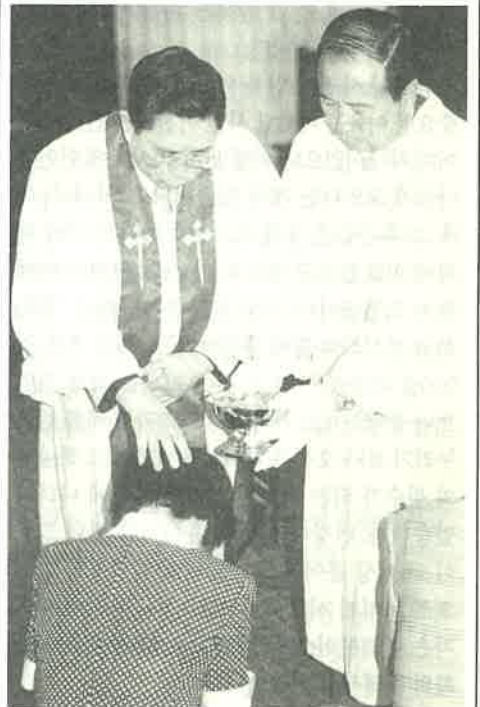
새로이 선출된 안수집사는 7월부터 3개월간의 교육을 거쳐 오는 1월 추수감사절에 안수를 받게 된다. 이들은 오는 29일(수) II부 예배 후 안수 집사 교육을 위한 첫번째 오리엔테이션 모임을 당회장실에서 갖게 된다.

오늘은 권사 투표

지난 주에 이어 오늘도 II부 예배 후 예배실에서 공동의회를 갖고 30명의 권사를 선출하는 투표를 한다. 후보는 각각 15배가 되는 45명을 추천하였다. 당회는 45세 이상, 70세 미만의 헌법상 규정을 우리 교회 형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동의회에 추천하였다.

① 모든 후보는 헌법에 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② 50세 이상으로 하고

③ 70세 이상인 자(은퇴자)는 그 자격 기준에 해당될 경우 70세 이상인 무임권사와 함께 공동의회에서 가부를 묻기로 하였다.



'94 제3차 세례식 지난 수요일, II부 예배 후 6월세례식을 거행했다. 이날 25명이 학습을 받았으며 8명의 성도가 세례를, 6명이 유아세례를 받았다.



본지에 게재된 후보자 프로필과 대조에 가며 진지하게 투표에 임한 성도들



착오없는 개표를 위해 머리를 맞댄 당회원들

창세기
강해

바벨탑

(창세기 11장 1 ~ 9절)

이 중 윤 목사

창세기 10장 8-12절에 나오는 니므롯이 처음 도성을 세운 사건과 본문의 시날 평지에 쌓은 성 사이에는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두 성의 공통점은 하나님 없이 문화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벨'이란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바벨론'으로 읽을 수 있고 바벨론 사람의 음으로는 바빌(Bab-ill)이 되었으며 후일 아람 사람들에게 '발랄(balal)'로 변형되었는데 이 말 속에는 '혼잡'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긋게 된 중요한 이유는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인간의 언어가 하나이었으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나뉘게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그 후손들은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 시날 평지가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축복(창 9:1)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 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잘못된 역사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번성하기 위해 흠어져야 했던 그들이 더 이상 흠어지지 않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함의 자손 니므롯이 세운 바벨탑은 하나님 없는 문화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하나님 없는 문화를 건설하고 하나님 없는 문화를 자랑하며 창달하려는 이 세대적 사상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1. 잘못된 공명심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공명심은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는데 니므롯이 세운 바벨론은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찬탈한 무서운 사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주셨고(창 5:2), 아브라함(창 17:5), 이스라엘(창 12:8), 심지어 예수의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어 주신 것입니다(마 1:21).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 땅에서 이

루시고자 하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기 보다는 자기 이름을 내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는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요 배역의 죄입니다.

2. 잘못된 종교심

"성과 대를 쌓아 대쪽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11:4)라는 말은 바벨탑을 쌓는 일이 문화행사 같아보이지만 사실상 종교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암시한다고 마틴 루터는 주석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후일에 바벨론의 말둑신(Marduk)으로 신격화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범신론 사상은 결국 로마, 히랍, 인도, 애굽과 같은 나라의 제 신들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니므롯은 자기 이름을 뉘므로 후손들이 그를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면서 니므롯처럼 자기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종교심이 하늘에 성을 쌓고 대를 닿게 하자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지평정도로 낮은 시날평지에 산 높이 만큼만 성을 쌓으려 해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늘에 제단을 쌓고 예배 처소를 만들려 한 것은 점성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후에 애굽으로까지 전파되어 스�핑크스나 피라미트의 건축시에 별의 운행을 따라 지었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별의 운행과 방향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을 점치려한 점성술은 하나님 없이 인간문명을 세우고 실제로 인간 자신을 숭배케 하려는 사탄의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점성술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단과 같이 취급해서 저주하기도 했습니다(레 19장, 신 18장).

3. 잘못된 집합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기까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홍수나 불로 망하게 하는 방법보다는 인간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를 가면서 더 이상 흠어지면 영원히 망하고 말터이니 더 이상 흠어지지 말자고 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흠으셨던 것입니다.

본문 3, 4절에 '자!'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이는 '오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인간들이 흠어짐을 면하기 위해 집합의 초청을 하고 있을 때 무소부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자, 우리가 내려가자'하시며 마치 인간의 처럼 행동하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잘못된 집합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러나'로 응답하시어 인간의 도도를 허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인간에 대한 진노의 부름이 아니라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이 언어의 혼잡인데 오순절 성령강림 시 언어의 통일로서 저주가 물려진 사인을 주셨습니다. 니므롯 백성들은 자기의 명성을 좇았고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도성을 쌓았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이름의 영광과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찾아야 합니다.

✦ 순례자 컬럼 ✦

넘어야 할 체면의식

잘못된 의식을 개혁하기란 바른 일을 추진해 가는 것보다 쉽지 않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체면문화의 의식구조 속에 깊이 빠져 있다고 비판하는 소리도 있다. 대학입시에 낙방한 자식을 앞에 놓고 분통을 터뜨리는 어머니의 말 속엔 아들의 미래나 자식의 심리적 부담에 대한 염려보다는 남부끄러워 어찌하면 좋으냐는 말이 서슴없이 터져 나온다. 세상에서 잘못을 범한 이들이 죄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그 결과에 대한 대책보다는 얼굴을 들 수가 없단가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말로 일관된다. 얼굴문화 즉 체면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기에 겉치레에 더 많은 신경을 써왔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과다 경쟁심이 오늘의 과소비, 과다홍수, 사치 풍조에 우리를 빠지게 한 것이다. 이제는 체면의 풍토를 바꿀 때가 된 것 같다.

보이는 것 보다는 보이지 않는 일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하자.

6. 25를 상기하며,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기원하며

▶ 소망부, 백두산 기행기

백두산에 올라

김 일 용 (집사 · 모세선교회장)

우리는 중국으로 향하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기로 하고 신약성경 15권을 준비하여 서울을 떠났다. 상해와 북경 그리고 요동 땅 연길을 거쳐 약 7시간의 비포장 산길을 버스와 지프를 타고 달려 백두산 정상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 6월 3일 오전 7시 경이었다.

백두산 정상에 오른 우리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장백폭포 입구에서 78장 찬송을 부르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가랑비와 안개로 인하여 백두산 천지의 전경은 감상하지 못했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신비로이 감추어 놓은 그곳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다. 기온은 영상 3-4도 정도로 상쾌했으며 눈으로 하얗게 덮인 백두산 정상은 참으로 깨끗하며 웅장하며 아름답게 보였다. 또한 장백폭포에서 흘러내리는 뜨거운 온천물에 계란을 반숙해 먹은 맛은 정말 별미 중 별미였다. 백두산 주위에 펼쳐져 있는 천연수목들 그리고 이름 모를 꽃과 새들의 지저귀음을 어떻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는가?

상해 - 북경 - 연길 - 백두산 - 용정 - 북경 - 천지 - 연태 - 청도로 이어진 여행은 계획에 차질없이 이루어졌으며 청도에서 인천으로의 마르코폴로 유람선 상에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바로 옆에 12억의 엄청난 복음의 어장이 있고 그 어장 속에는 오늘도 착실히 그리고 끈기있게 살고 있는 수십만의 우리 동포 소수민족이 있으며 태산이 넘어져도 끄덕하지 않는 중국인의 '만만다 정신'이 있다는 사실이 하나 하나 새겨지고 있었다.

우리는 백두산 정상에서 예배를 드렸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78장 찬송을 부른 후 눈물로 시편 24편 1-6절을 교독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감사와 소원의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지가 있는 이 백두산의 웅장한 모습을 직접 목도하며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찬송이 백두산을 넘어 평양으로 휴전선을 지나 서울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수년 내에 복음의 메아리가 물결쳐 한라산에서 남산을 지나 금강산 백두산까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연길 용정 지방에 사는 많은 동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중국 12억 국민들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감추시어 우리가 오늘은 백두산 천지의 물을 보지 못하오나 깨끗하고 푸른 천지의 물이 2700고지 산 위에 400m깊이까지 있음을 아옵나이다. 우리가 기원하는 복음화된 민족의 통일도 지금은 감추어져 있사오나 그 있을 그곳에 확실히 하나님께서 보전하여 두신 것을 믿나이다. 주여 원하오니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그것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위기일발의 시국에

피난처 있으니

박 동 춘 (집사, 6교구, 차량관리부원)

6월. 우리민족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달이며 젊음을 나라 위해 바친 영령들을 추모하는 호국의 달이다. 이를 기억하며 해마다 6월에 가지는 우리 교회의 홍해작전이 올해 더 큰 의미를 주었던 것은 벼랑 끝에 있던 북핵문제로 전세계의 이목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분단시대를 살아 온 우리의 마음을 더욱 더 아프게 한 때문이었다.

인류 역사는 생존권 수호를 위한 수많은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으며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과 투쟁은 지속되고 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전쟁은 그 민족의 사활이 달려있는 만큼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대비하고 있다. 현대전은 가공할 만한 핵무기의 개발과 무기체제의 발달로 만약 1, 2차 대전과 같은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겠기에 파멸의 불청객이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이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급변화와 함께 세계 열강들은 탈 냉전시대를 앞다투어 선포하였고 화평의 주 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으며 철의 장막 소련이, 즉의 장막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종식하고 개방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왜 이 민족에게는 분단 반세기가 지나도록 하나님의 화평의 시간표가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한이 서린 휴전선, 민족의 아픈골짜기는 나날이 더 전문이 감도는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불의와 불신과 불충의 죄에 빠져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잠에 취해 있고 황금만능주의에 눈이 멀어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는 사악한 사회가 되어버린 이 민족을 위해 이제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만 한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삼상17:47)이니 포로로 잡혀간 민족을 위해 굶은 배운을 입고 재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스라엘의 포로 대표들처럼(단9:20) '내 죄 및 내 백성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작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정치력도 군사력도 우방국의 지원도 위기 일발의 시국에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없다.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라.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쓰데 없네.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세상에 모든 것 망하리라”

이제 주님께만 피하여 마음의 배운을 입고 회개하며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쉬임없이 해야만 할 것이다.

▶ 이 땅 위에 전쟁없는 날을 바라며

평화의 복음 위한 군사되어야

최 병 호 (목사, 5·6교구 담당, 초등부 지도)

최근에 6.25참전 중군기자의 컬러 녹화 테이프를 편집하여 방영한 TV 프로그램을 보았다. 흑백으로 보아오던 것과는 사뭇 다른 전쟁의 참혹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까? 아니면 사람에게 의해서 일까? 구약에서는 성전(聖戰)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언급하고 있다. “여호와께 용사시니”(출15:3), “여호와께 전쟁기에 일었으니”(민21:14),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삼상17:47) 이라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속에서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계시하고 있다. 예언자들은 전쟁을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이나 교만한 이방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말하고 있고 목시자들은 믿음에 대한 시험과 시대의 종말에 대한 표징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구약의 내용을 보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이 악한 본성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심을 보여 주는 것이다. ★

(4면에 계속)

(3면에서 계속)

★신약에서는 구약에서와는 전혀 다른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전쟁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마5:9)고 하였고, 원수들에 대해 미움과 폭력 대신 선대할 것(마5:43-44)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분열될 것을 의미하여 화평이 아니라 겹을 주러 왔다(마10:34)고 하였으나 주님의 진정한 뜻은 겹을 가진 자는 겹으로 망한다(막26:52)고 하셨다.

초대교회는 거룩한 전쟁을 영적으로 해석했다. 죄와 사탄과 우주의 악마적 세력에 대항하는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마침내 승리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구약시대의 외적 전쟁을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적 전쟁으로 변화시켰고 전쟁의 모든 도구는 평화의 도구로 변화시켰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던 것(을3:10)을 칼은 쳐서 보습을 만들며(사2:4),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미4:3) 평화를 누리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대속 제물로 오셨던 것처럼 평화의 복음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 흑시 제네바 협정에서 정당한 전쟁의 요건을 제시할찌라도 군사적 행동이나 폭력적 대응이 아니라 인내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순교자의 대열에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교회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 주차 질서를 지킵시다! -

- 우리 교회 주차문제에 관해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교회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 도로나 보도에는 주차하지 맙시다. 얼마 전, 교회 앞 보도에 잠시 주차한 차량이 견인되기도 했습니다.
- 주일에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 ⑥)



- 주일에 하루 종일 주차하는 차량은 ① 대남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 부득이한 도로 등에 주차를 해야할 경우, 특별한 사유로 정상적인 주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파랑색 유니폼을 입은 차량관리부원에게 알려 주십시오. 서울교회 차량관리부 -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옵소서!
2.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들을 세우는 일에 은혜로 함께 하소서.
3. 성숙한 천국시민이 되게 하옵소서.

새일꾼 세 각오 - 신임 안수집사가 되고서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서문석 (집사·초동부 교사)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을 간직하고 살아가면서도 부족함과 약함을 늘 고백할 수 밖에 없었던 내게 지난 19일 일꾼 선출의 공동의회는 신앙인으로서의 내 삶에 큰 도전을 받으며 돌아보는 자신을 계기가 되었다. 이제껏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넓혀가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그럼에도 일꾼으로 다시금 불러 주시는 은혜에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남다른 사랑과 비전을 한 모퉁이에서 지켜보며 교회의 일원으로 미력하나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을 가졌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바른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진지하게 기도하며 신중하게 투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더욱 힘써 주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하리라는 새로운 결심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

한 몸 안에 눈과 귀, 코와 입, 그리고 각 지체가 누가 크냐고 서로 비교하며 분쟁하지 않는 것같이 맡겨주신 자리에 충성되어 서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만 진력해야 할 것이다. 녹는 소금으로, 비추이는 빛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새로 세움을 받은 일꾼들을 위한 성도들의 응원의 기도가 간단없이 지속되어 줄 것을 감히 부탁하는 바이다.

새 일꾼으로 세움받았음을 감사하면서 평소의 기도제목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묵상해 본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빌립보서 1장 20절)

새가족환영회

지난 23일(목),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다. 교회에 대한 안내와 소개, 식사와 친교의 시간 등을 통해 한가족됨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새가족들은 간증을 통해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책임있는 신자로 성숙해 가도록 계속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교우 동정 ■

- 설재구 집사(6교구)는 「국제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